

한양대학교 2017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인문계

모의논술

수험번호 () 성명 ()

※ <가>와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뒤, 그 의견을 기준으로 하여 <다>에 제시된 사례의 마지막 빈 칸에 들어갈 주인공 '시리'의 대사를 적어보고, 그 논리적 근거를 서술하시오.(1,200자, 100점)

<가> 1997년 복제 양 돌리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인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돌리의 탄생은 곧 인간 복제의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복제 가능성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 복제 기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체세포 복제를 통한 인간 개체의 복제에 대한 근본적 우려가 가장 커다랗게 다가왔다. 이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대체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만약 인간 개체의 복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별히 체세포 핵 이식술을 활용하는 인간 복제 기술은 기존의 출생 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이러한 인간 복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인간 복제가 신(神)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종교계의 반대는 자연스러운 출생 과정을 강조하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그 논리적 근거가 다소 빈약해 보인다. 이에 비해 인간 복제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실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보다 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예컨대 복제 기술로 탄생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정체성 혼란과 건강상의 문제, 가족 관계 설정의 문제, 우생학의 발생 문제, 그리고 복제 인간을 수단화할 가능성으로 인한 인간 존엄성 훼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복제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복제 과정에서 파생할 수 있는 여러 예상 가능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기술의 맹목적 질주를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학기술의 오도된 방향은 인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사려 깊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나> 생물학은 이제 탐구 대상을 유전 현상에서 발생 문제로 바꾸어가고 있다. 모든 생명체의 공통 질서인 유전 현상이 규명되고 나면 다음은 수정란에서 거대한 몸이 생기는 발생 과정에 관한 것으로 탐구 대상이 옮겨갈 것이다. 지금까지 100년의 발달생물학 역사에서 계속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세포가 분열하여 분화하기 시작하면 유전 물질인 DNA에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오는가? 다시 말하면 일단 분화된 세포는 다시 초기 기간 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가? 복제 양 돌리가 태어나기 전까지 모든 발달생물학 교과서는 한결같이 세포가 일단 분화되면 더 이상 예전 초기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돌리의 출현으로 분화 과정은 되돌아갈 수도 있는 가역적 현상임이 밝혀졌다. 예전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기간 세포가 평생 동안 분화 세포를 만들고 만일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면 조직별로 이상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분화된 세포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간 세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인간은 장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최근 연구는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명 복제 기술에는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난점을 타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가득 들어 있다. 복제 기술을 통한 유용한 의약품 생산은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어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핵 이식에 의한 유전자 복제술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유전적 질환 및 난치병 치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생명 복제 기술의 의학적 유용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인간 복제의 부작용을 걱정한다. 하지만 이때 구미 과학자들은 밤을 새워 새로운 차원에서 기간 세포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혁명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 측면에서 복제 기술의 참모습을 이해 못한다면 우리는 한낱 소모적인 인간 복제 논쟁에나 힘을 쏟게 될 것이다.

<다>

(다음은 불치병에 걸린 이리스가 복제 기술에 의존하여 자신의 쌍둥이 자매이자 딸인 시리를 낳으면서 겪게 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의 일부이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카타리나 셸린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나는 왜 그 아이를 다른 할머니들처럼 무조건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 시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애가 태어났고, 건강하고 생기 있게 자라고 있다는 거야.’

시리를 보면서 카타리나 셸린은 자기도 모르게 이리스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다. 외모가 서로 비슷해 보이는 것은 어느 집에서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리스와 시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흥분할 건 또 뭐라 말인가? 카타리나 셸린은 스스로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이제 시리가 30년 전의 이리스와 똑같은 자세로 피아노 앞에 앉아 이리스가 가장 좋아하던 바흐의 푸가를 똑같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카타리나 셸린은 이때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딸이 정말로 둘이라는 사실을 퍼뜩 깨닫게 되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다섯 살짜리 시리도 이리스였고, 바로 자기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서른여섯 살의 성숙한 여인 역시 이리스였던 것이다.

만일 저 둘이 동일한 사람이라면 자신은 두 사람 모두의 엄마인 셈이다. 그리고 자신의 죽은 남편은 이리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시리의 아버지이기도 한 것이다. 자기가 죽은 지 한참 후에 태어난 딸의 아버지라니!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이 카타리나 셸린을 혼란스럽게 했다.

지금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아이는 그 나이 때의 이리스와 비교할 때 훨씬 더 훌륭하게 피아노를 치고 있다. 카타리나 셸린은 터져 나오는 비명을 억제하려는 듯 양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가까스로 자신을 억제했다. 그러나 그 순간 시리는 할머니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눈치 챘다. 처음엔 입에서 그 다음엔 목 쪽에서 갑자기 억누르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아주 잠깐 시선을 마주쳤다. 시리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내비치는 적대감에 깜짝 놀랐다.

“괴물!”

카타리나 셸린은 이를 갈 듯이 한마디 내뱉었다.

바로 그 순간, 시리는 할머니가 자신을 향해 쏟아놓은 말에 대해 매우 침착하게 이렇게 응대하였다. (끝)